

12월의 안테나

盧 永 翰
(본지 편집국장)

유연해야 이긴다

브로일러산업을 비롯한 축산전반에 주름이 가
기 시작하였다.

지난 3년간 미국 사료곡물가격의 하락안정
에 힘입어 다른 업종이 어려운 중에서도 축산
업은 그런대로 호황을 누려온셈이다. 특히 양
돈분야는 가격이 상승하여 정부에서도 돼지고
기가격 안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여 왔다.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소비증대를 위한 TV,
잡지, 신문, 각종 세미나, 요리강습회가 개최
되었고 한의사들도 호텔에 모여 돼지고기·닭고
기 섭취의 건강에 매우 좋다는 연구발표가 수차
래 이루어졌다.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소비자교
육 덕분에 소비가 크게 신장하였으나 양돈을 비
롯한 육계산업의 양적 확대도 수요를 앞질러 갔
으며, 더군다나 브로일러산업은 금년 3월부터
시행된 도제유통으로 원활한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면치 못하였다.

10월부터 냉각되기 시작한 축산업계의 경
기는 브로일러 산지가격을 1g당 400원대로 하락시
키고 말았다. 과거에는 이렇게 바닥까지 가격이
하락하고 나면 회복도 빨리 왔으나 이번 불황은

가격형성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의의
로 장기화할 조짐이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사료가격은 11월 1일 11~12%씩 인상되었
는데도 연초에는 다시한번 인상이 불가피하며
양돈업계의 불황이 장기화되고 그간 우리경제를
이끌어 오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던 해외
건설경기의 퇴조와 국내 건축정책 등으로 불황
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불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그간 주기적으로 당
한 불황에서 몸으로 체득한 바와 같이 기업의
운영이 경직되면 불황에 넘어진다는 진리이다.
천하장사 이 만기선수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
을 배울 수 있다. TV를 통해본 그는 거의다 넘
어갈 것 같으면서도 최후의 순간에 허리의 유연
성을 살려 이기곤 한다.

브로일러산업이 모두들 이제는 끝났다고 하
지만, 다 넘어진다고 하지만, 유연성을 살려 다
시 일어나야 한다.



새해 첫 선물은 사료값 인상

한해를 보내는 12월이 되면 지난해를 돌이켜 보며 다가오는 새해에 희망을 가져본다.

금년은 다사다난한 한해이었다고만 표현하기에는 부족함도 느낀다. 명성, 영동, 광명그룹의 부도 외에 KAL 피격, 아웅산폭파사건 등 국내외적으로 너무도 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그러나 이런 일들보다도 양계업계에 2월말의 도계유통실시와 10월의 육계가격 폭락, 2번에 걸친 사료가격의 대폭인상 등 정신차리기 힘든 한해이었다.

이제 브로일러업계는 기진맥진하였으며 부화, 동물약품, 사료업계로 불황이 파급되어 가기 때문에 양계인들은 어서 속히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게 된다.

새해에는 좋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로 오늘을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새해에 우리에게 줄 첫 선물은 배합사료가격의 인상이 될 것이 거의 틀림없다.

그간 몇차례 인상요인을 본지에 소개하였거니와 관세가 옥수수, 대두박이 5%인상 실시되고 그외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의제매입제도도 아직은 관계부처간 합의

를 보지 못하였으나 인하요인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 다행히 곡물가격이 160 \$선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단백질 원료인 박류가격은 인상되고 있다.

양계사료의 주종인 옥수수를 비롯한 사료곡물의 수입도 과거 축협으로 창구가 일원화 되거



나 사료협회와 함께 수입할 때는 물량의 수급에는 차질이 없었으나 앞으로 다원화시대에는 이에 대한 장담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료공장별로 원료공급이 다원화됨에 따라 사료공장별로 원료구매를 잘하고 못하는 것으로 사료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료구매방법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철저한 기록으로 가장 생산비를 적게 하는 사료선택이 양축가의 성공비결이 될 것이다.

● 신속하고 정확한 대한양계협회 발행 시세속보

구독문의 ☎ (752) 3571 ~ 2